

우리 기록문화의 꽃, 외규장각 의궤



의소세손 예장도감의궤(1752년)

조선왕조는 왕세자나 왕비 책봉 및 왕과 왕비의 승하, 궁궐의 축조와 수리 등과 같은 국가와 왕실의 중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후대의 사람들이 의식이나 행사를 행함에 있어 빈틈없이 예법에 맞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일종의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궤(儀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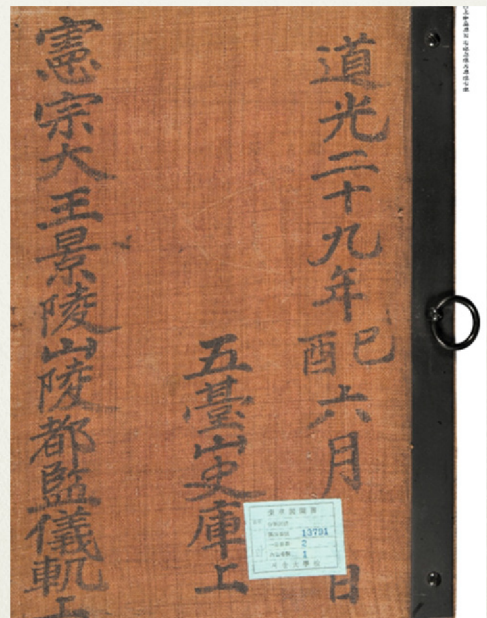
의식의 모범이 되는 의궤에는 행사의 준비와 진행 과정, 의례 절차와 내용, 소요 경비, 참가 인원, 포상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왕조는 이를 모범으로 삼아 국정을 운영하였다. 즉, 의궤는 예치(禮治)와 문치(文治)라는 조선시대 국가의 통치 철학과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문화유산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조선왕조 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의궤는 건국 초부터 꾸준히 제작되었으나 조선 전기의 의궤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란을 거치면서 모두 유실되었다. 현재에 남아 있는 것은 17세기 초에서 20세기 초까지 제작된 의궤만 남아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의궤는 약 4,100여 책이 있다.

의궤의 제작은 국왕의 열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어람용 의궤(御覽用 儀軌)와 의정부(議政府)와 춘추관(春秋館)과 같은 중앙의 관련 관청에서 향후 비슷한 행사가 있을 때 참고하거나 항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만든 분상용 의궤(分上用 儀軌)가 있다. 고급스럽게 만든 국왕이 열람한 어람용 의궤는 본래 궁궐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란과 화재로 순식간에 재로 화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었다. 정조 임금의 이를 위한 안전 대책으로 1782년에 강화도



〈그림 1〉 헌종대왕 경릉 산릉도감의궤(1849년), 어람용 의궤



〈그림 2〉 헌종대왕 경릉 산릉도감의궤(1849년), 분상용 의궤

행궁 안에 규장각(奎章閣)의 분소로 외규장각(外奎章閣)을 설치하였다. 이곳에는 어람용 의궤를 비롯하여 임금의 도장인 어보(御寶), 왕세자나 왕비의 임명장인 교명(敕命), 임금이 지은 글과 글씨 등 왕실 관련 주요 서책과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왔다.

1866년 정초부터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로 인해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죽고 8,0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이때 청나라로 탈출한 리텔 신부는 이 사실을 텐진의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제독에게 보고하였다. 로즈제독은 7척의 휘하 함대와 해병대 1,200여 명을 이끌고 강화도를 공격하였는데 이것이 병인양요이다.

이때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를 일시 점령하였으나 양현수 장군이 이끈 조선군에 패배하여 퇴각하였다. 패퇴하던 프랑스 군은 외규장각에 소장된 의궤를 포함한 서적 359책과 은궤 19상자 등을 탈취하고 강화도 행궁과 외규장각 등의 건물을 비롯 약 5,000건이 넘는 자료들을 불태웠다. 약탈된 의궤는 이듬해 프랑스 황실도서관에 기증되었고, 이후 중국 도서로 분류된 탓에 그간 행방을 찾기 어려웠다.

역사 속에 묻혔던 외규장각 의궤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한 故 박병선(1929 ~ 2011) 박사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다.



〈그림 3〉 효장세자 책례도감의궤(1725년),
어람용 의궤



〈그림 4〉 효장세자 책례도감의궤(1725년),
분상용 의궤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55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는 박씨에게 스승인 이병도 박사는 “프랑스군들이 탈취해간 외규장각 도서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니 찾아보라는 당부를 하였다”고 한다. 그는 1967년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가 되어 오랜 노력 끝에 1975년, 마침내 우리의 의궤가 중국 도서로 분류된 채 국립도서관 베르사이유 별관 파손 창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도서 목록을 정리해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의궤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반환을 위한 관과 민, 학계 등의 끈질긴 노력이 이어졌다. 그리하여 프랑스 함대에 의해 약탈된지 145년만인 2011년 외규장각 의궤는 4차례에 걸쳐 우리 국적기를 통해 반환되었다. 한평생 프랑스에서 우리의 의궤를 찾고 이를 국내에 알리고 반환운동을 하여 마침내 우리 품에 돌아오게 하였던 박병선 박사는 의궤가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작년 11월 23일에 눈을 감았다.

외규장각 의궤는 국왕의 열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의궤이므로 분상용 의궤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어람용과 분상용은 동일한 행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은 차이가 없지만 종이와 표지, 안료의 재질, 책의

묶은 장정 방법, 서체와 필사, 그림의 수준 등 형태와 재질, 제작 기법에서 현저한 수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람용 의궤는 최고급 종이인 초주지를 사용하지만 분상용은 저주지를 사용하고 있다. 책의 표지 또한 어람용은 비단으로 장식하고 그 위에 흰색 비단을 따로 붙여 의궤의 제목을 쓰고 있는데 비해, 분상용은 책 표지를 삼베로 꾸미고 의궤 제목을 삼베 위에 직접 쓰고 소장처를 명기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그림 1, 2)

어람용과 분상용 의궤의 차이는 도설(圖說)과 반차도(班次圖)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람용은 행렬에 배치된 인물과 말, 각

종 기물을 붓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였으며 행렬 좌우의 말과 사람들이 움직이는 듯한 동적인 느낌을 준 반면, 분상용의 반차도는 채색이 안된 부분도 많고 인물의 표현도 개략적인 선으로 그린 초본(初本)인 경우가 적지 않다(그림 3, 4)

이번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돌아온 의궤는 모두 외규장각에 보관되었던 어람용 의궤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유일본 의궤가 30책이나 포함되어 있어 더욱 가치가 크다.

이러한 의궤는 조선왕조의 국정 철학과 기록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인 동시에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 역량이 결집된 기록물이자 도화서의 화원 화가(畵院畵家)들이 그린 예술품이기도 하다. 이렇듯 많은 의미를 가진 외규장각 의궤가 1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은 작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이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개되고 있으며, 국립대구박물관(7. 17 ~ 9. 9)과 국립전주박물관(9. 25 ~ 11. 4)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길 기대한다. 

최선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